



이목지신(移木之信)

주 승 환

고려공업검사(주) 연구소장

을 유년 벽두에 한 고사(故事)로 목은해를 돌아보자. 우리의 일터인 ‘원자력 세상’에서 있었던 큰일들 중 하나이던 원전센터 부지 선정 공고가 끝을 못보고 새해로 미뤄졌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앞으로 그 일을 재개할 때, 제목에서 풍길 사려 깊은 뜻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도 그 일은 현재 진행형이라 앞으로 어떤 변수가 닥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청와대가 직접 챙겨오던 그 일이 지난 연말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바뀌었고, 원자력위원회가 또 그 일에 개입하여 ‘따로 국밥처럼’ 중-저준위 쓰레기와 ‘태운 원전 연료’를 따로 분리해서 가동하자던,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 위원회가 할 일이 그토록 없었던가? 어느 때는 ‘합장’, 어느 때는 ‘분리 매장’, 원전 쓰레기들의 본질을 바꿔놓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면서, 이러자면 이대로, 저러자면 그대로를... 그래서야 국가 원자력 정책에서 헌법재판소와 다름없는 위상이 말씀 아니게 되고 말았다.

에너지 정책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진한 미래 지향적 산업 속성을 함축시켜야 할 터인데 자주 원칙을 바꾼다고 말들이 많다.

구성원 각자 권위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한다.

제목의 고사는 신영복 교수가 펴낸 <강의>에서 다룬 한 담론 구절이다. 논어 편,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의 소제목에서 인용한 글귀다. 중국 전국 춘추 시대의 얘기다.

진나라 재상으로 상양(商鞅)이란 명재상이 있었다. 신상필벌로 국가의 영을 다스린 선구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독자들 대부분은 그의 일화인 ‘이목지신(移木之信)’를 기억할 것이다.

원전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려

고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지난 2003~4년 동안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인 두 해였다. 하지만 불안 사태처럼 양금만 남기고 한발 물러서야 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담당 공무원은 ‘위원회’란 옥상옥인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앉게 될 위원들을 추천받아 지명한다. 그들은 담당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관한 안건들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상양은 그런 핑계 정책을 펴진 않았다. 국가의 신뢰를 단 한 토막의 나무로 회복시켜 놓았다.

대궐 남쪽 문 앞에 한 토막의 나무를 세워놓고 방문을 붙였다. ‘이 나무를 옮기는 이에겐 백금(白金)을 하사한다’.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다. 그래서 상금을 천금(千金)으로 올렸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다시 만금(萬金)으로 올렸다. 어느 한 건

달이 용기를 내어 '손해 볼 일도 없는데' 하면서 그 일을 치렀다. 약속대로 상양은 그에게 로또 복금이나 다름없는 횡재를 안겨줬다는 얘기가 다. 진나라가 부강 강병을 이룬 시발점이 나무 한 토막으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공무원의 지혜가 모사재인(謀事在人)의 정신으로 무장됐었다는 증거다.

상금을 3천억, 양성자 가속기 시설 그리고 한전 본사 이전이란 엄청난 국가 부담을 담보해도 목은해의 원전센터 추진 성과는 상양의 나무 한 토막보다도 덜 한 풀이 되고 말았다. 만금을 노렸던 필자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 '따로국밥'도 상양의 나무 한 토막 기능만큼 원전센터 지역 선정에 영향을 못 주게 될 것이다. 무엇을 잘못 짚고 있다.

사실 급한 쪽은 태운 원전 연료인데 난데 없이 분리라니, 그래가지고서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다. 원전센터 현장을 가봐라! 그래야 번뜩이는 지혜가 샘솟는다.

다음 글은 필자가 지난 2년 동안 원전센터 유치 현장에서 단기 필마로 원자력 문화 홍보 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내용 일부를 담았다. 다행히 <울진신문> (2005. 1)에 기고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읽어주기를 바래서다. 과학자의 소신으로 원자력 세상을 인식하자는 메시지

를 담아 현장에 띄웠다.

**고향으로 부치는 편지 -
울진의 100년 그림은 주민들
손으로 그리자**

타향살이 하는 많은 울진 사람들은 여기 고정란을 사랑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정감이 넘치는 문장을 올리고, 다른 이들은 실린 글들에 감동하면서 함께 향수를 달랠 것이다. 필자도 예외일 순 없다. 벌써 스무 번째가 올랐더니, 그런 마당을 만드신 울진신문사 편집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돈의 고갈은 이 땅 어디서나 다를 바 없다. 특별히 지방 신문 발행의 어려움도 신경 썩여 될 터인데, 고향으로 부치는 타향살이들의 사연들도 정성스레 살피고 챙겨 만든 지면이라 함께 동참하고 싶었다.

지난 글들이 그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모두를 한 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놀랍게도, 고향 산천은 시인들도 많이 배출시켰고, 활동하는 기업인들도 많다. 기억나는 글들은 아직도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인 고향의 푸른 바다, 신선의 정기가 서린 깊은 산골, 티 없이 맑은 시냇물 소리, 어머님의 파스하던 손길, 그리고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 정감을 나누던 이웃들을 그리워하는, 어느 한 가지라도 뺄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루 1억 킬로와트의 울진 원전

필자는 원자력을 전공했다. 다른 선두 주자들의 글들과는 좀 다르게, 이 고정란에 채워놓을 고향 산천의 그림은 원전 얘기나 사연들을 담고 싶다. 혹여라도 오해를 불러올까 조바심도 난다. 하지만 20여 년 전부터 울진에는 원전이 세워졌고, 고향의 명암이 거기에 쏠려있다.

작년까지 하루 1억 킬로와트가 훨씬 넘을 전력량을 생산하는 거대한 원전 때문에 고향은 미래가 없는 버려진 곳으로 치부돼왔던, 한때 어둡게 조명된 때도 있었다.

그런 전력량은 어림잡아 월 300 킬로와트 전력을 소비하는 일천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울진에서 만든다.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장이란 궁지는 지금 울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02년까지 필자가 고향을 찾을 때면, 아무 생각 없이 울진 원전 주변을 맴돌면서 울진 바닥 정서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다. 방관자로서는 고향 사람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는 생각을 지난 두해 동안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었다. 용기를 내어 김용수 군수에게 3차레나 원전센터 유치를 간청하는 편지도 올렸고, 고향 출신 김광원 국회의원에게도 한차례 편지를 썼다. 하지만 단 한 마디



도 그들로부터 편지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지역 주민들은 원전센터 유치를 울진에서 한다면 절단 널 '사형선고'라 외쳐대도 울진의 대표들은 모르쇠로 무심할 뿐이다.

원전센터를 울진에 유치하려는 <울진발전포럼>의 고문직도 차렸었다. 뿐만 아니다. 고향사람들이 한번에 80여 명이나, 10여 차래 대전에서 소재한 원전센터 견학 때에도 조언자로 서울에서 빠짐없이 즐겁게 대전으로 달려갔다. 좋게 보면 원전센터에 폭 빠진 한 마니아(man-iac)이고, 달리 보면, 자폐증에 걸린 환자일지도 모른다.

원전-쓰레기를 바르게 알자

필자는 울진신문 홈페이지 글을 올린다. 이번엔 올릴 글도 이 지면처럼, 20회 쟀다. 거기서는 고향 네티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반-핵'이나 '찬-핵'이란 용어들이 서로 함께 만나는 한마당이기도 하다.

오해받는 경우도 있긴 했었지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이들도 많다. 필자에게는 그들 모두가 고향 사람들이지 남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한때 정치권에 회자된 독특한 사투리, 경상도 억양인 '우리가 남이가?'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원자'를 우리 눈으로는 바로 볼 수 없다. 물질을 이룬 기본단위로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방사선도 열처럼 에너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센 방사선 아니고서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 주변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얼마인지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십만 여명의 목숨을 진공 청소기처럼 쓸어간 '쓰나미(Tsunami)'도 할퀴고 지나간 흔적들만 남겼지, 파괴력인 에너지의 본질을 본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 에너지들은 파동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다.

노안에는 안경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것들을 우리 오감으로 느끼려면 도구인 원자 현미경이나 방사능 감시기 그리고 전파 탐지기를 써야 한다. 그런 장치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심해 만든 고안품들이다. 원자 현미경이라면, 세계적 명품으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든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방사능 원자(방사선을 내는 원자)'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치부된다.

원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센 방사능 원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필자는 그것들이나 그들이 묻어진 것을 포함하여, '원전-쓰레기'라 부른다. 이것들이 인심 좋고 물 좋던 울진의 바다 정서를 쓰나미 해일처럼 휩쓸고 갔다.

하지만, 그것들을 '핵폐기물'로

부르는 것은 원전을 잘못 안 오해의 소산일 것이다. 북한을 제외하고,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핵-쓰레기들인지 그렇게 부르짖는 저들은 까닭을 밝혀야 한다.

외지 '반핵 단체'들은 별의별 루머들을 지어댄다. 그런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부풀려 그들의 주장들을 퍼가는 데 이용할 수도 있었기에 그동안 이득을 챙겼을 것이다. 전문가들에게는 돋보기가 준비돼 있기에 속일 수 없다.

원자를 주민들의 보통 눈으로 어림할 지식만이라도 가진다면 하는 생각으로 <주승환의 원자력세상보기>를 시작했다. 때마다, 울진에서 벌어지는 지역 이슈들도 거기에 곁들이다보니 아직도 원자의 참모습을 우리 손에 넣지 못했다.

원자의 모습을 손에 쥐고 나면, '핵폐기물'이란 낯선 용어, 그리고 원전도 울진을 삼켜버릴 악마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100년 이후의 울진을 올바르게 그리자

앞서 얘기대로, 이 난에 실린 글들을 모두 읽었다. 그것들 중에서 특별히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직전에 실린, '100년 후 고향의 풍경화' (울진신문, 2004.12.24. 11쪽)이다. 기자의 시각으로 본, 울진의 풍경을 10년 단위로 나눠 대표될 특징들만 그려놓았다. 모두가 공

감할 내용들을 짚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100년 후인 '2100년의 풍경'은 필자를 심히 불안케 할, 네거티브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그 주범은 '원전센터' 유치로 어필됐다. 지금, 어느 누구도 미래 울진의 참모습을 기본대로 성급하게 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조물주만 알고 있을 고향 미래를 점술가처럼, 하나의 풍경으로 묘사할 수는 없다.

원전센터는 악마일순 없다. 그리고 폭발할 위험성도 전혀 없다. 두 고두고 후회될 시설물은 더욱 아님을 확신한다. 장인 정신으로 바라보면, 속속들이 보이기에 장담한다. 반대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수만 년 동안 물어뜯 원전-쓰레기도 아니다.

다만 지금은 완벽한 처분 방법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기술 개발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몇 년이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아마도 수십 년 안에는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발견을 과학으로 인정한다면, 그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으로 생겨나는 원전 쓰레기도 당연히 과학에 맡겨 처분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원자력을 과학이라 말할 수는 없을 뿐더러 석탄 에너지처럼 시대에 따라 유행할 한갓 패션 산업일 뿐이다. 패션은 유행에 따라 편리하게 쓰다버릴 한갓 기교이다. 과학은 인류에게 문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할 명제이지, 문제

를 남긴다면, 과학이라 말할 수 없다. '원전센터'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지어낸 용어일 뿐이다. '원전-쓰레기' 들을 완벽하게 가둬놓은 시설물이므로, '원전쓰레기 임시 저장소'란 말이 더 어울린다.

문제의 글은 '당대의 어른들'이 감당할 '의무'라고 하는 말은 어른들이 함께 원전센터 유치 반대에 동참하자는 소리로 읽게 한다. 그래서 후대의 아들딸들이 어른이 되어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을 위해서 유보해 둔, 그런 미래 풍경을 그려 놓았다.

원전센터의 유치 명분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고향 산천이 삶의 현장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그 태고의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염원한다. 하지만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불꽃이 이글대는 생업 현장이다. 그런 곳은 다양한 발전의 물결이 넘실대야 한다. 원전센터 유치의 명분이 그런 것이다.

필자도 고향이 그리울 때면, 태어난 울진읍 고성리의 한 마을 전경을 떠올린다. 남대천이 흐르는 강 언덕에 수백 년 묵은 백여 그루의 소나무 받이 있었다. 필자가 고 2년 이던, 1959년, '사라호 태풍'이 칠나에 이를 휩쓸어버렸다. 비록 자연이 저지른 수재였지만, 보전(保全)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 것이 타향살이들에게는 향수를 지배할 우상이다.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고향 생각은, 동심처럼 설익은 과실일 뿐이다. 원전센터 유치는 울진이란 과실을 완숙하게 익힐 기회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은 2003년 초부터 많이 바뀌었다. 문제의 글에서도, '지금은 온 동네에 원전으로 꽉 찼다' 반핵하는 한 후배의 탄식을 한 말로 압축하고 있었다. 지금은 주민 투표로 꼭지를 딸 일만 남겨 놓았다. 군수 개인의 반대는 권력자의 독선이요, 오만일 것이다. 군수의 역할은 주민 의사를 올바르게 확인할 찬반 논의를 통한- 주민 투표를 성실하게 실시하고 감독하는 그 일 뿐이다.

원전센터 유치는 주민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게 법이다. 이 난에 투고했던 한 애향인의 바램처럼, 난마(亂麻)에 시름하는 내 고향 울진을, '쾌도난마'로 해결할 희망이다.

"희망은 고난의 언어이며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동양고전 독법에 관한<강의>를 펴낸 신영복 교수는 123쪽에다 썼다.

일회성 엑스포 이벤트가 울진을 살릴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미래 울진의 '희망'을 덧칠하려는 일은 한 정치인의 쇼일 뿐이다. 원전센터 유치만이 '희망'의 대안임을 거듭 되새기자. ☞